



보도 시점 2026. 2. 20.(금) 14:00
(2026. 2. 21.(토) 조간)

배포 2026. 2. 20.(금) 09:00

과기정통부, 첨단장비부터 범용장비까지 연구 장비 생태계 조성 나선다

- ‘첨단 혁신 장비 협력체(첨단 혁신 장비 얼라이언스)’에 ‘범용장비 분과’ 추가,
수입 의존도 90% 이상 범용 연구 장비 국산화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범용 연구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범용장비 분과’를 신설하고, 2월 20일(금) 1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범용장비 분과’는 지난해 7월 발족한 「첨단 혁신 장비 협력체(첨단 혁신 장비 얼라이언스)」의 산하 분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분과는 오실로스코프, 원심분리기, 분광분석기 등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외산 비율이 높고, 2~3년 내에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혁신장비기술 정책센터에서 국가연구시설 장비 구매 현황('19~'23)을 분석한 결과, 연구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오실로스코프,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스펙트럼 분석기 등은 외산 비중이 100%에 달하며, 시료 절편기(95.8%), 증류/농축기(93.6%), 가스 크로마토그래피(91.0%) 등도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첨단장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 및 연구 장비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1억 원 이하의 범용장비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 분과를 신설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비롯해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COMPA) 김병국 원장, 이진환 범용장비 분과 위원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정책기획본부장), 분과 위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진환 위원장은 “기초장비는 연구개발의 뿌리와 같으며, 이를 외산에 의존하면 국가 과학기술의 자립은 불가능하다”라며 “현장의 수요와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을 분석하여, 2~3년 내에 연구 현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연구 장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협력체(얼라이언스)와 분과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산화가 시급한 범용장비 수요 발굴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범용장비의 국산화는 국가 연구 생태계 전반의 비용 절감과 함께 국내 연구장비산업의 전·후방 기업의 수요를 창출하여 연구장비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이번 분과 신설을 통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산화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연구 장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첨단 혁신 장비 협력체(얼라이언스) 및 범용 장비분과 개요

담당 부서	연구 성과혁신관 연구산업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보현 (044-202-4730)
		담당자	사무관	장지선 (044-202-4734)
관련 기관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	책임자	팀장	이창식 (02-736-910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자	센터장	강상우 (042-868-5823)
	첨단 혁신 장비 기술 정책센터	담당자	팀장	서인수 (042-868-5622)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 개요**

- (비전)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뒷받침할 첨단혁신장비*의 국산화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산업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 * 기초연구 중심(실험실)의 연구장비에서 산업 제조공정 분야의 측정·검사 장비까지 확대
- (주요임무) ①기술로드맵 ②신규 사업기획 ③생태계 확장 ④국제협력
- (추진경과) 킥오프(5.29) → 얼라이언스 출범(7.2) → 기술수준 평가 및 로드맵 수립 전문위 운영(8월~) → 장비선정 분과위원회(9월) → 총괄위 보고(12.3)
- (구성) 총괄위, 분과위 등으로 구성



□ **범용장비분과 개요**

- (목적) 외산비율이 높고 빠른 대체가 가능한 연구장비(단가 1억원 이하) 발굴을 통해 2~3년 내에 보급이 가능한 장비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
 - * 연구현장의 수요요구(기술스펙, UI, SW 등)와 국내 장비기업의 기술역량을 고려
- (구성) 총 16명(분과위원장 1명, 참여위원 15명)

구분	성명	소속/직위	비고	구분	성명	소속/직위	비고
1	이진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정책기획본부장	위원장	9	이동욱	홍익대학교/교수	학
2	김기성	제이오텍/대표이사	산	10	이승아	서울대학교/교수	학
3	김준휘	LTIS/대표이사	산	11	이휘돈	부산대학교/교수	학
4	남윤철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실장	산	12	현규	부산대학교/교수	학
5	한청수	케이런/대표이사	산	13	김정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책임연구원	연
6	한현석	영인크로매스/대표이사	산	14	김현우	한국화학연구원/책임연구원	연
7	권오훈	한국과학기술원/교수	학	15	이경균	나노종합기술원/그룹리더	연
8	민준홍	중앙대학교/교수	학	16	이다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책임연구원	연